

소극장 '극강스' ...연극 있다-있다 페스티벌



퓨전국악그룹 예다의 '락을 사랑한 뺑파던'.



극단 밝은밤의 '사거리 모퉁이를 돌면 우리만의 감성카페에서 느닷없이'.

푸른연극마을, 광주 씨어터연바람서 26일~8월 17일 스틸러·코미디 등 4편...퓨전국악그룹 '예다' 소리극도

한여름, 극장은 또 다른 여행지다. 바닷가나 계곡이 아니어도 시원한 바람과 생생한 이야기가 흐른다. 이번 여름 무더위를 피해 조용한 소극장에서 즐기는 '극강스'는 어떤까.

'연극 있다-있다 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광주 씨어터연바람에서 관객을 맞는다.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주관하는 이 페스티벌은 지역 연극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열려왔으며, 극장과 무대를 잇고, 배우와 관객을 잇는다는 뜻을 품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연계의 침체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애호가들의 관심이 쏠린다. 올해 축제는 '극강스'를 주제로 더운 여름 색다른 휴가를 제안한다.

◇사회적 미스터리 푸는 추리 연극... '믿을지 모르겠지만'

축제의 문을 여는 첫 작품은 극단 '작은신화'의 미스터리 연극 '믿을지 모르겠지만' (오는 26-27일). 1986년 창단해 서울의 대표적 연극단체로 자리잡은 '작은신화'가 40년 연출 경력을 지닌 최용훈과 함께 광주 무대에 선다. 이 작품은 일곱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추리극으로, 14명의 배우가 각기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며 긴장과 몰입을 이끈다.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서른다섯 남자 이야기,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꿈과 현실을 혼동하게 된 잠수부 이야기, 과거 잘못된 처방으로 괴로워하는 여의사 이야기 등 관객들은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 추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폭력, 성차별, 편견 등을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된다. 관객이 단순

한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진실을 완성하는 주제로 극에 참여하게 하는 구성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부제에 부합한다.

◇간질거리는 청춘 로맨스... '사거리 모퉁이를 돌면 우리만의 감성카페에서 느닷없이'

8월 2-3일에는 광주 지역의 청년 극단 '밝은밤'이 로맨스 코미디극 '사거리 모퉁이를 돌면 우리만의 감성카페에서 느닷없이'를 무대에 올린다. 청춘의 통증과 사랑을 감성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신에 연출가 임재빈의 신작이다. 비 내리던 날 이별했던 연인 회상과 동행이 1년 뒤, 눈 내리는 겨울날 우연히 다시 만나는 설정. 사거리 모퉁이의 감성카페를 배경으로 사랑과 오해, 그리고 청춘의 아픔을 담담하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밝은밤은 2020년 창단 이래 광주의 청년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극단으로, 이번 작품을 통해 따뜻한 감성과 연극적 서사를 전한다.

◇오월의 기억을 묻는 블랙코미디... '장인표 상사, 공적을 청하다'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8월 8-10일 블랙휴먼코미디 '장인표 상사, 공적을 청하다'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재치있는 소설가가 쓴 동명의 단편소설이 원작이다. 1980년 5월의 군사쿠데타를 정면으로 마주한 군인의 기억을 모티브로 펼쳐진다. 주인공 장인표는 공수부대 상사로,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안고 살아온 인물이다.

그는 42년 만에 5·18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공적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하게 된다. 그의 고



'연극 있다-있다 페스티벌'이 씨어터연바람에서 오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펼쳐진다. 극단 작은신화의 '믿을지 모르겠지만'의 한 장면. <푸른연극마을 제공>

백 속에서 그동안의 죽음을 각오하고 항명을 해야 했던 트라우마가 쏟아져 나온다. 연극은 현대사 속 국가폭력과 개인의 선택, 그리고 명예 회복을 둘러싼 치열한 내면을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내며 묘한 긴장과 감동을 동시에 전한다.

◇판소리와 락의 만남! '락을 사랑한 뺑파던'

축제의 마지막 무대는 퓨전국악그룹 '예다'의 창작 소리극 '락을 사랑한 뺑파던'이다(8월 16-17일). 고전소설 '삼정전' 속 뺑파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판소리와 락, 코미디를 결합한 이색 무대를 펼친다. 행실 고약한 뺑파이가 사라진 심봉사를 찾아 21C

로 타임슬립 여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인간 내면의 감정과 연대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이 다.

전통 판소리를 전자악기와 퍼포먼스, 현대적 유머로 재해석한 본 공연은 국악을 처음 접하는 관객에게도 친근한 입문 무대가 될 예정이다. 특히 관객 참여형 구성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무대를 이끈다. 2011년 창단한 예다는 전통을 기반으로 창극, 국악가요, 락,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국악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도슨트 양성 과정 모집 광주시립미술관 선착순 8월 8일까지 50명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025년 도슨트 양성교육' 관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는 도슨트 양성교육은 해설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깊이있는 전시를 전달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부터 도슨트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시립미술관은 그동안 해설 역량을 갖춘 도슨트를 양성해왔다. 배출된 도슨트들은 광주 비엔날레를 비롯해 광주지자비엔날레, 아트광주, 양림비엔날레 등 다양한 행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다.

강의는 총 5주간 주 2회(화, 목) 회당 2시간씩 진행되며 시립미술관장과 소속 학예연구사, 도슨트 전문가가 강사로 함께 참여한다. 기본 소양은 물론 미술관 기능과 역할, 한국 근현대미술, 현대미술의 개념과 감상방법, 비엔날레-아트페어의 이해, 도슨트 현장과 노하우, 현장 실습 및 멘토링, 등 이론과 실습을 적절히 배분한 주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선착순 50명이며, 오는 8월 8일까지 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윤익관장은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이 원활하면서도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시간과 빛이 전하는 다채로운 풍경

강남구전, 강진 분홍나루노을 전시관서 8월 30일까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시간은 변한다'는 것이다.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시간은 흐르고, 흐르는 시간은 다양한 풍경을 만든다.

예술가에게 시간은 영원한 화두이자 구현하고 싶은 주제이다. 시간과 맞물려 시시각각 변하는 빛, 그 빛을 받아 세상의 모든 사물은 저마다의 이미지와 감성을 발현한다.

강진 분홍나루 노을 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강남구 서양화가의 초대전, 오는 8월 30일까지 '시간과 빛의 풍경'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시간', '빛', '풍경'이 키워드다.

전시 공간인 분홍나루 노을전시관은 북화문화공간, 스마트캡터 기능을 갖췄다. 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스카이워크 등 전

망 시설도 있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작가는 그동안 대화를 모티브로 강인한 생명력과 미려한 감성을 환기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사실과 환상의 경계를 재현한 밀도 있는 근경 묘사가 특징이었다. 화폭 속 매화는 바로 눈앞에 핀 실재 같기도, 판넬상 존재하는 이데아 속 형상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시간의 풍경'은 끝속의 한 장면을 구현한 듯한 느낌이다. 해가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아스라이 펼쳐진 저물녘 바다의 풍경은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다. 작가는 이번에도 감동적 인상과 탐구로 대상을 문학적적으로 표현해 시각적 율림에 초점을 맞췄다.

'해바라기'는 그랬다기보다 대상을 렌즈에 담은 것처럼 정밀하면서도 섬세하다. 하오의 빛을 받아 자연스레 웃는 해바라기 주위로 흑여 나비가 울려 히 날아들 것도 같다.

강 작가는 "시간과 빛이 피사체에 발현하는 다채로운 세계를 표현하고 싶었다"며 "이름처럼 전망이 뛰어난 노을전시관에 둘러 자연 풍광도 감상하고 작품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국내 아트페어, 단체전, 초대전에 참여했다. 한



'시간의 풍경'

국미협, 한국전업작가회, 광주구상작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에도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제주 청년 예술가 만나다

'빅보스 마칭밴드' - '밴드이강' 26일 전일빌딩245



빅보스 마칭밴드



밴드이강

서로 다른 풍경과 정서를 지닌 두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만난다. 광주와 제주를 대표하는 밴드가 각자의 색깔을 담은 음악을 주고받으며, 지역을 잇는 특별한 교류를 펼친다.

'지역교류음악회-우리'가 오는 26일 오후 4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전일빌딩245의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이 서로의 무대와 감성을 교류하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무대에는 광주의 '빅보스 마칭밴드'와 제주의 '밴드이강'이 오른다. 빅보스 마칭밴드는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수자폰, 드럼으로 구성된 5인조 브라스 밴드로, 뉴올리언스 세컨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활기찬 연주를 선보인다. 축제 퍼레이드를 연상케 하는 생동감 넘치는 리듬은 광주 도심의 에너지와 어우러져 강한 현장감을 전할 예정이다.

제주 출신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 결성한 퓨전밴드 '밴드이강'은 뺑파리와 바이올린·건반·드럼이라는 독특한 편성으로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을 뽀는 음악을 선보이는 팀이다. 제주의 풍경과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난 서정적인 자작곡부터 흥겨운 리듬까지, 감성적이면서도 다채로운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역교류음악회-우리'는 지난 6월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팀 임현후 담당자는 "이번 공연은 광주와 제주, 두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문화적 연대와 예술적 상생을 실현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관람료 무료, 선착순 입장제.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